

고려인 3·4세 위해 광주·전남 시도민 뜻 모아 설립

타슈켄트 세종한글학교를 가다

8개 교실 출발...규모·위상 '상전벽해' 4000명 졸업...엘리트 산실 자리매김

타슈켄트=윤영기 기자

1991년 8월 10일은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내몰린 고려인에게 뜻깊은 날이었다.

수도 타슈켄트에 광주일보사 주도로 세워진 '타슈켄트 광주 한글학교' (세종한글 학교 전신)가 문을 연 것이다. 반세기 동안 모국어와 고국을 잊고 살아야 했던 고려인들에게 한글학교 개교는 감격 그 자체였다. 이들은 강제이주가 시작된 지난 1937년부터 '생오지'나 다름없는 중앙아시아에서 소수민족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 한글학교는 구소련에서 갖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에 주 한국대사관도 없었던 시절(한국 대사관은 1992년에 들어섰다)에 세워져 그 뜻을 더했다. 학교가 동포들의 사랑방이자, 민간 외교의 거점이 됐음은 물론이다.

해의 동포들에게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 세워진 최초의 민간 교육시설이 었기 때문에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광주일보사는 창사 39주년 기념사업으로 대대적인 캠페인과 모금운동을 벌여 광주 한글학교를 세웠다. 재의 동포에게 모국어를 본격적으로 교육해 한민족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배려였다. 타슈켄트시는 당시 소련계 주한인 48만명 가운데 20만이 살고 있는 한인 본거지여서 학교 설립의 최적지로 꼽혔다.

광주일보사와 '광주 북한연구소'가 학교설립을 주관했고, '북한연구학회' 소속 김중재(현 서재필 기념사업회 이사장) 통일원 광주북한관장, 임채완(전남대 세계한문문화연구원장) 전남대 교수 등이 열정을 바쳤다.

본사는 '타슈켄트 광주 한글학교'를 세운 데 이어 타슈켄트에 '한겨레 한글학교', 알마아타에 '고려 전산 한글학교', 이르쿠츠크에 '고려인 한글학교', 하바로프스크에 '흑룡강 한글학

교' 등을 잇따라 세워 한글교육의 씨앗을 뿌렸다.

광주 한글학교 개교 당시 타슈켄트 사범대학 조선어과 교수, 학생, 한인 등 50명이 앞다퉈 수강신청서를 낼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타슈켄트 신문, 고려일보 등 유력 일간지들도 개교식을 앞다퉈 취재 보도했다.

김중재 이사장은 "개교식에서 '반세기 동안 잊고 살아야 했던 우리말을 다시 배울 수 있게 됐다. 이 나라에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며 감격하던 동포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중재 이사장은 "개교식에서 '반세기 동안 잊고 살아야 했던 우리말을 다시 배울 수 있게 됐다. 이 나라에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며 감격하던 동포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한글학교는 대지 200㎡, 건평 100㎡ 규모의 건물, 8개의 교실로 출발했다. 개교 21년째인 학교의 모습은 상전벽해다. 지난해 경기도가 지원해 학교 부지에 2층짜리 도서관과 IT교실을 신축했고, 5개 교실, 휴게실 등을 갖춘 어엿한 규모를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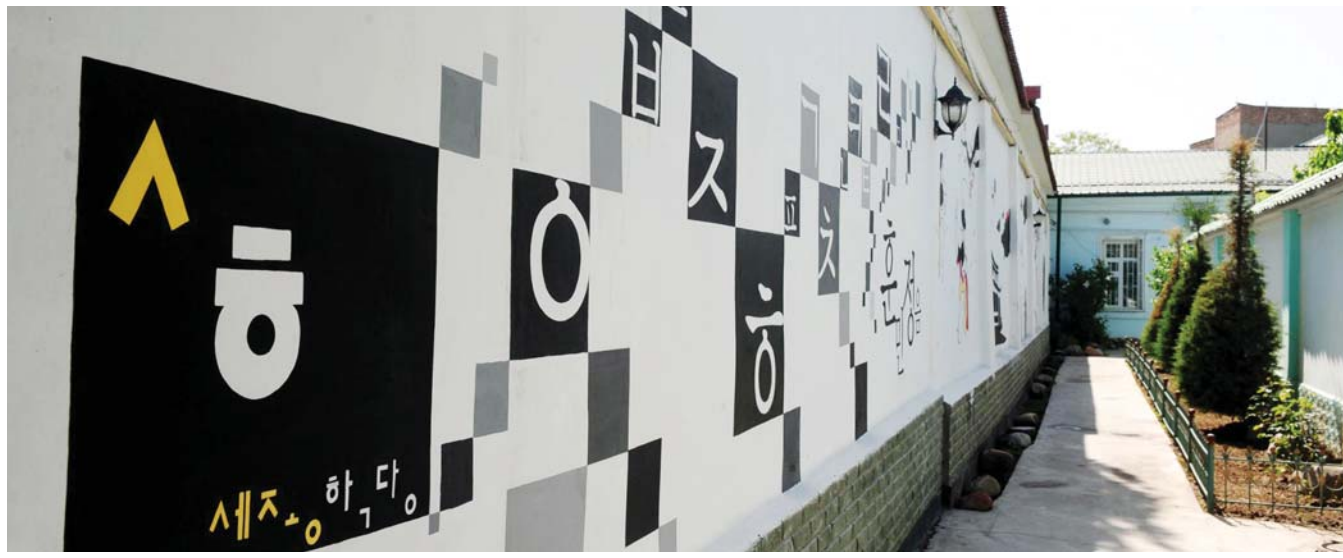
개교 당시 50여명이었던 학생수는 연 평균 270명으로 늘었고, 졸업생은 4000여명에 달한다. 지난 95년 세종한글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학교의 위상도 21년째를 맞는 역사만큼 공고해졌다. 우즈베키스탄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에서 한글학교 교육과정 이수율 가장 높게 평가한다. 국립 사마르칸트대·타슈켄트 동방대·니자미 사범대학교, 세계 경제·외교대학교, 우즈베크 외국어대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세종한글학교 졸업증서는 필수 자격증이 됐다.

이들 대학생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류의 바람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이 주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가장 권위 있는 행사다. 올해 대회는 '한국과 우즈베크 외교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10일 타슈켄트 동방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우즈베키스탄 6개 대학에서 예선을 거친 11명이 참가, '남북통일'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외교수립 20주년'이라는 주제로 한국어 솜씨를 겨뤘다.



19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세종한글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한글 수업을 듣고 있다.



세종한글학교는 우즈베키스탄 한류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한글 자음과 모음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세종한글학교 벽면.

/타슈켄트=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겨웠다.

세종한글학교는 우수인력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졸업생 상당수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한국계 기업과 여행사 등지에서 근무하면서 민간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 결과 해외에 있는 한글학교 가운데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세계 각지에서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벤치마킹하러 오는 선진기관이 된 것이다.

지난해 9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어 해외 보급을 위해 '세종학당'으로 지정한 75개 기관 중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지원으로 지난 1991년 8월 처음 문을 연 타슈켄트 '광주 한글학교' 개교식.

우즈베키스탄 한글 전도사
허선행 세종한글학교 교장

"모국 초청연수·장학사업 아직도 지원 필요합니다"

"학교에 기숙사를 마련해 우르겐치, 부하라, 누크스 등 세종한글학교가 있는 타슈켄트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후생들이 마음 놓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꿈입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있는 세종한글학교 허선행(48) 교장은 18일 광주일보 취재진과 만나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학습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모국 초청연수, 장학사업 등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인 허 교장은 올해 개교 21년째를 맞는 이 학교에서 1991년 개교 때부터 교편을 잡은 중앙아시아 한글교육의 산증인이다.

전남대 사범대를 졸업한 그는 "교사로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모국어를 잊고 사는 고려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에 매료돼 우즈베키스탄으로 날아갔다"고 회고했다.

허 교장은 처음에는 영어권을 대상으로 한 영문 한글교재 밖에 없어 자신이 직접 만든 한국어 교재를 복사해 사용했다고 한다. 한글학교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가르치는 것은 물론 생계마저 어려운 때도 있었다.

그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수업을 받는 고려인 청소년들의 열정을 보며 어려움을 참아냈다"며 "졸업생들이 취직해 첫 월급을 탔다고 자그마한 선물을 사오거나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보여줄 때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의 교육철학은 학생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에 담겨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식인 빵은 소화돼 없어 지지만, 한국어는 평생 살게 해주는 양식"이라는 것이다. 고려인, 우즈베키스탄인들 대부분이 한글을 배워 한국계 기업에 취직해 미래를 개척하려는 꿈을 품고 세종한글학교에서 공부하기 때문이다.

허선행 교장은 "한글학교에서 고려인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교장은 한글과 한국의 역사, 그리고 문화를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7년 국민포장을 받았다.

불법사금융 피해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지금 신고하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 기간: 2012년 4월 18일 ~ 5월 31일

- ◆ 대출업체가 불법고금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 불법채권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 ◆ 대출사기나 유사수신 피해를 당하였습니까? ◆ 대출중개수수료를 부담하였습니까?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금융감독원 ☎1332

경찰청 ☎112
지방자치단체 ☎120(서울·부산·인천·경기)

· 인터넷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참여마당
경찰청 홈페이지 - 신고민원포털

· 방문 접수: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부산·대구·광주·대전)
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소액의 창업자금·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
미소금융을 이용해 보세요.
(문의: 1600-3500, 전국 미소금융지점)

▶ 생계자금이 필요하다면 햇살론이나
새희망출씨를 이용해 보세요.
(햇살론 문의: 1588-7365, 상호금융(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저축은행)
(새희망출씨 문의: 02-3705-5000, 16개 은행 지점)

▶ 연 20%이상의 고금리대출을 11% 내외의
저금리대출로 바꾸고 싶다면 바퀴드림론을
이용해 보세요.
(문의: 1588-1288, 한국자산관리공사)

▶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분으로
상황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문의: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새희망네트워킹(www.hopenet.or.kr)에
방문하거나, 서민금융119(s119.fss.or.kr)를
이용해 보세요.